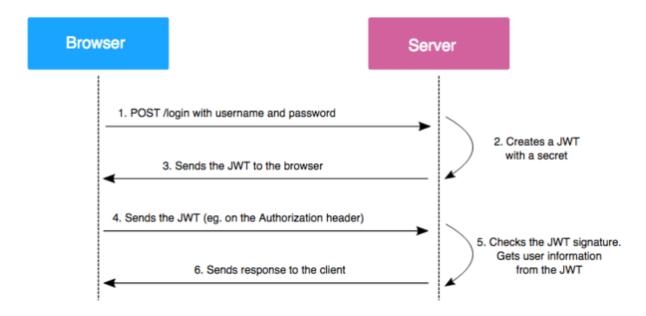
JWT를 사용하는 이유

특징

- Header, Payload, Signature의 구조
- Decode 하면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.
- Header, Payload, Signature로 이루어짐
 - Header : 토큰의 타입과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구성
 - Payload : 토큰에서 사용할 정보의 조각들인 클레임이 담겨져 있음.
 - Signature : Token을 인코딩하거나 유효성 검증을 할 때 사용하는 고유한 암호화
 코드
- Self-contained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
 - JWT가 스스로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.
- 모바일 환경에서 다시 로그인 할 필요가 없다
- Stateless 함
 - 。 세션과는 다르게 백엔드 서버가 바뀌어도 인증 가능하다
 - o Stateless의 장점
 - Scale out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
 -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음
 - Validation check만으로도 검증이 가능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white list 방식의 추가 검증을 하는 경우가 있음
 - ⇒ Validation만으로도 안정성을 보장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

JWT 동작 과정



- 1. Browser 가 Server에 POST 방식으로 로그인 요청
- 2. Server에서 JWT를 생성
- 3. Server에서 생성된 JWT를 Browser에게 반환
- 4. 이후 Browser는 Server에 요청할 때 발급 받은 JWT를 함께 보냄
- 5. Server에서 JWT에 포함된 Signature를 확인하고 JWT에서 사용자 정보를 꺼내 사용
- 6. Browser에게 응답을 보냄

Access token && Refresh token

- Jwt는 Access token과 Refresh token 2개의 토큰을 사용
- Access token 은 짧게, Refresh token 은 보다 긴 생명 주기를 갖는다

Refresh token의 필요 이유

- Access token만을 사용할 경우 제 3자에게 탈취당한다면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
 - ⇒ 공격자는 사용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권한 접근이 가능해지게
- 따라서 Access token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고, Refresh token을 이용해 재발급이 가능하게끔 함

Access token & Refresh token 재발급 원리

- 1. 로그인 시 Access token과 Refresh token을 모두 발급
 - Refresh token만 서버측 DB에 저장
 - Refresh token 과 Access token을 쿠키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
- 2. 사용자가 인증에 필요한 API에 접근 시 가장 먼저 토큰을 검사
 - Access token 과 Refresh token이 모두 만료
 - 。 에러 발생 ⇒ 다시 로그인하여 재발급
 - Access token을 만료, Refresh token은 유효
 - ∘ Refresh token을 검증하여 access token 재발급
 - 클라이언트(쿠키, 웹스토리지)에 저장되어있는 Refresh token과 서버 DB에 있는 Refresh token 일치성 확인 후 발급
 - Access token은 유효. Refresh token은 만료
 - Access token을 검증하여 Refresh token 재발급
 - Access token이 유효하다는 것은 이미 인증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바로 Refresh token을 재발
 - Access token & Refresh token이 둘다 유효
 - 。 정상처리

Refresh token 인증 과정



- 1. 사용자가 로그인
- 2. 서버에서는 회원 DB에서 값을 비교
- 3. 로그인이 완료되면 Access token, Refresh token을 발급 후 DB에 Refresh token 저장
- 4. 3과 동일
- 5. 사용자는 Refresh token은 안전한 저장소에 저장 후, 다른 요청 시 access token을 실어 요청 보냄
- 6. Access token을 검증하여 이에 맞는 데이터 보냄
- 7. 6과 동일
- 8. 시간이 지나 Access token이 만료됨
- 9. 사용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Access token을 헤더에 실어 요청 보냄
- 10. 서버는 Access token이 만료됨을 확인하고 권한없음을 보냄
- 11. 10과 동일
- 12. 사용자는 Refresh token과 Access token을 함께 서버로 보냄
- 13. 서버는 받은 Access token이 조작되지 않는지 확인후 Refresh token을 DB에 저장된 Refresh token과 비교 후 재발급 진행
- 14. 서버는 새로운 Access token을 헤더에 실어 다시 요청 보냄

- Access Token 이 만료될 때마다 9~11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음
- Front에서 Access token의 Payload를 통해 유효기간을 알수 있기 때문에 API 요청 전에 토큰이 만료되었다면 곧바로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음